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7, 야고보서 1:5-15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17회차 야고보서 1:5-15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첫 번째 주요 단위에서 두 번째 하위 단위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는 지혜 부족에 대한 대응입니다.

첫 번째는 시련에 대한 반응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제 지혜가 부족할 때의 응답은 기도, 즉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1장 5절부터 8절). 물론 우리는 바로 이 구절을 자세히 관찰했지만 여기서는 다음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는 그것이 1장 5절 상절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니 이것이 결과의 원인이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그것은 물론 이 두 가지 권고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락이 표어 또는 스티치 단어 부족으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앞 단락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lepo*,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레피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시련에 대한 반응과 기뻐하라고 방금 말한 것과 지혜에 관해 지금 말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야고보의 방식을 나타냅니다. 지혜의 은사는 사람이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고, 시험을 견디게 하며, 확고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허용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도구 사용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에서 지혜가 신성한 선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요구의

맥락에서 제시된 이 신성한 은사는 그것이 신성한 요구를 허용하거나 실현되도록 하는 신성한 은사임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지혜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끝이 아닙니다. 4절에서 말하는 과정의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의 끝은 견고함과 온전함의 사슬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기서 지혜는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그러므로 그것은 과정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시작입니다.

4절의 이 과정은 과정의 결과 끝에서 있는 것에 반대하여 작동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요구되는 기쁨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한 수단인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말했듯이, 이 연결은 여기의 문맥에 의해 표시되지만 구약과 신구약 사이의 연결에 의해서도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욥과 같은 지혜의 전통과 요셉의 성서, 마카베오서 4서, 쿨란 자료와 같은 묵시적인 전통은 모두 지혜가 수단이며, 신성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성한 수단이며 특히 인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성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혜는 시련의 진정한 성격과 잠재력, 즉 현실을 이해하거나 알며, 시련의 진정한 성격과 잠재력, 즉 현실을 이해하고, 또한 이 지식에 따라 행동하고, 현실을 알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실에.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피터 데이비드(Peter David)의 논평을 주목합니다. 그는 지혜란 신자가 신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게 하고, 이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소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의 참된 빛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단락의 요점은 이런 종류의 지혜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획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얻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이나 그리스도인에게 내재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신학적 함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회심 자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획득이 있다는 것, 회심 후에 오는 은혜 획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내심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이나 그리스도인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신성한 선물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언급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혜자인 솔로몬과 그가 지혜를 얻은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고, 기도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선물이자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모든 궁극적인 필요 또는 모든 궁극적인 필요의 충족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더 큰 성경적 이해의 일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신성한 실재로서의 지혜라는 개념은 야고보서의 온유함과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뇨? 선한 삶을 통해 지혜의 온유함과 겸손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월함과 악함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세상의 지혜와 반대됩니다.

3:14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 자신의 힘, 중요성, 잠재력에 대한 감각을 강조하므로  
이기심 및 자기 확장과 연결됩니다. 이제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야고보는 이 책의 다른 부분, 심지어 지혜와 구체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책의 뒷부분에서도 관심 사항인 효과적인 기도의 문제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라는 전체 사업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여기 본문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전개됩니다.  
명백히 야고보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가 1장 5절부터 8장까지에서 말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기도에 적용되지만 특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지혜로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긴급한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말했듯이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권고는 *praeae*, 즉 하나님, 기도의 방향, 신성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꾸짖지 않고 관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과 그 결과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를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신학, 즉 하나님의 교리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꾸짖지 않고 관대하게 베푸는 분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관대하게  
베푼다. 이것이 RSV가 번역한 방식입니다.

단어는 *haplos* 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의 의미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 정의와 단어 사용도 포함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대합니다. 이것이 RSV가 번역한  
방식입니다.

주는 정도입니다. 그는 꼭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간단합니다.

즉,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정도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주는 것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마음을 다해,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계산 없이, 분열된 마음 없이, 포괄적으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서 두 번째 정의가 단순히, 온 마음을 다해, 주저함 없이,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주고자 하는 포괄적인 열망을 가지고, 문제가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고 싶은 욕구인 이러한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다. 그러나 실제로는 둘 다 서로 연루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베풀고자 하는 욕망은 지나친 기부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하나님에 관하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ididzo 가 동사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또는 그분의 승인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청에 대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또는 조금이라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은 전적인 것입니다. 기부에 대한 그의 헌신은 총체적입니다.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에는 한 점의 예비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인간 주는 자들, 특히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특히 5장 1절부터 11절에 묘사된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속한 임금을 보류하는 것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 방향으로 이끄는 의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주는 것에 대한 그분의 태도에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일종의 참호 신앙, 즉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하나님과 흥정하는 태도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선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이 부족하다는 뿌리깊은 의심의 표현입니다. 나는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심지어 적절하게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매우 건전한 태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가 여기서 잘못 생각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의미. 실제로 여기서 제안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합당한 범위 내에서 그분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도 기도와 기도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초점에서 기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특히 인간의 기도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의심하는 사람의 성격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긍정적인 결과에 긍정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이 권고를 입증했지만, 이제 그는 의심하는 자의 성품과 부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권고를 입증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하나님의 성품과 기도의 성품의 균형은 마술적이거나 영적인 것에 대한 기도의 관계적이고 개인적이며 시너지적인 모델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기계적 또는 의식적 모델.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도 거룩하신 인간도 아니며, 둘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수반합니다. 문제는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기도와 관련된 대인 관계의 역동성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조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특정한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물어봅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타적인 범위는 전혀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기도에 대한 심판을 왔다 갔다 하는 내부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조는 이 신앙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불신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제가 듣는 두문자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불신입니다. 문맥을 보면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절대적인 베푸심, 베푸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헌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특정한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믿음과 가정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전체적인 태도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4장 8절에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한 묘사를 주목하라. 다시 말하지만, 더 넓은 책의 맥락에 비추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중 마음을 가진 딥수소스(dipsuxos)를 언급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4:8에서 그것을 확장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과 평행을 이룬다는 평행법이 여기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곤고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라.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낙담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므로 4장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죄인이고 더러운 손으로 마음이 부패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에서 4:4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문맥상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세상과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모두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친구이며, 그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깊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걷는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성품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이 사람은 근본적인 가르침 또는 근본적인 확신, 곧 모든 것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신께. 야고보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서 전체를 쉼마 신학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하나님이시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단지 다른 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이시며, 통일되시고, 온전하시고,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지만,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기초는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기초는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께로서 내려온다고 거기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실제로 야고보에 관한 한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는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4장에서 본 것처럼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다음 문단, 여기의 다음 하위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기쁨과 시련의 관점에서, 비천하게 착취된 지위에 대한 반응, 자랑, 승영에 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 번 권고로 시작하여 실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9절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권고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풀의 꽃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자연 세계와의 비교를 통해 입증합니다.

해가 돌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자도 그 일을 하다가 그와 같이 쇠패하리라. 이제 저자는 가난과 부에 대한 태도에 관해 9절과 10절에서 일종의 이중 권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가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이동할 때 그는 실제로 한 가지 유형의 시련, 즉 가난에 대한 시련과 두 가지 유혹, 즉 가난과 부와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유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에는 유혹이 내재되어 있고, 부에도 유혹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가난과 부에 대한 그의 태도에 관해 이중적인 권고로 시작합니다. 이 이중 권고의 첫 번째 부분은 낮은 형제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가 그를 낮은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프라우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낮거나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난한 것보다 더 넓기도 하고 더 좁기도 하다. 여기서 번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형편없이 번역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물론 실제로 RSV는 이것을 낮음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터무니없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완벽한 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조가 있지만 부자와 낮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멤버들이 정확히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실, 낮은 것의 반대는 부유한 것이 아니라 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반대말은 낮음이 아니라 가난함이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서 부자와 대조적으로 tapeinos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tapeinos가 가난한 것보다 더 넓기도 하고 더 좁다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태도 대 지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더 광범위합니다. 물론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것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도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함보다 좁습니다.

이 낮은 형제가 부자와 대조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부자와 대조되는 타피노스 라는 용어의 사용은 가난과 겸손, 비천함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인간의 힘과 잠재력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James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가 온유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1:21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3:13 그는 선한 생활을 통해 지혜와 겸손의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에게도 중요합니다. 4:16, 혀는, 음,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6, 예, 겸손의 측면에서, 그러나 그분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간의 힘과 잠재력을 거부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들을 택하셨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두 가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성서적 전통, 특히 시편과 지혜 전통에서는 가난과 경건함 사이에 연결이 자주 이루어지므로 가난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 등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구절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건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 믿음을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 경건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86:1과 2:2에서 이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을 두거나 안전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난의 상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둘

만한 것이 별로 없고 안전을 찾을 만한 것도 많이 없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구약성서에서는 가난과 가난 사이에 이러한 연관성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인간 마음의 심오한 부패를 고려할 때, 믿음이나 확신, 안전을 둘 만한 다른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인 종류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완벽한 대비가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는 외로움과 겸손을 강조하고 싶었고, 외로움과 겸손을 물질적 빈곤과 연관시켰지만, 그 둘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싶어했습니다. 자, 프토코스 (ptokos)처럼 가난하다는 뜻의 단어와 반대되는 타피노스 (tapeinos)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은 가난 그 자체가 선하지 않거나 반드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영혼의 외로움이 선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독은 가난과 관련이 있지만 가난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정신적 외로움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정신적 외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이와 관련하여 James가 그의 책의 두 번째 장에서 말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억압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의 숭배자들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합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주로 외로움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는 이 태도를 빈곤 상태와 연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연관성을 봅니다. 이제 자신이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권고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높임을 자랑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암묵적인 대조에 주목하세요. 낮은 자들은 지금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승영을 자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시제가 아니라 현재시제입니다. 물론 일종의 미래지향을 지닌 권고이긴 하지만, 그가 여기서 주로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신약성서의 종말론적 메시지에 담긴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역전되었음을 가리킨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은 왕국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고, 그것과 연결되어 신약성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운명의 반전을 가리킨다. 지금 가난하고 눌려진 자들은 종말에 가장 높은 지위로 높아지게 될 것이며, 지금도 미래의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약성서 종말론의 중요한 부분인 가치의 역전과 운명의 역전이라는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의 종말론이란 여기서 실현된 종말론, 즉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왕국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 시대의 한계를 가리킨다.

야고보는 현재 낮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관을 뒤집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삶을 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종말론이다. 하나님은 가치관을 그들의 머리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치 있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궁극적인 실재가 현세의 피상적인 모습에 있다고 가정하는 세속적 관점에 반하여 운명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행운에 대한 감각을 조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의 일시적이고 끝에서 두 번째이며 상대적으로 두 번째 특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했듯이 낮은 사람들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자를 거짓되고 즉각적으로 높이는 것보다 자신들의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거나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먼저 참되고 궁극적인 승영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지는 위치는 무엇이며, 피상적인 외모와 참된 것, 지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부자의 거짓되고 즉각적인 높아지는 관점에 비해 자신과 그들의 외로움을 그 관점에서 보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종말에 완성될 참되고 궁극적인 승영에 정서적을 포함하여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이 진리를 중심으로 그들의 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히 탐욕과 소유욕을 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승영이 의미하는 바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낮은 형제가 자신의 높아지심을 자랑하게 하려면 탐욕과 소유하려는 욕망을 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포함됩니다. 이것은 항상 자신이 없는 사람들의 유혹이며, 부자가 되려는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4:1-10, 탐욕). 또한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겸손에 내재된 억압과 고난을 기쁨과 인내로 견디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 반대하여 그들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입증을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야고보는 5장 6절과 5장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를 선택하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나는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강탈하고, 그들의 가난과 취약성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승영을 높여야 한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는 착취자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태도를 취하면서 이것을 5장 6절과 11절에서 전개하는데, 물론 일종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것은 사회적 억압에 직면하여 수동성과 묵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종류의 억압에 직면하여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불의가 세상에 계속 퍼지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이 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5장에서는 폭력적인 반응을 거부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빈곤 문제를 중요한 방식으로 다루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내 생각에는 이것이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사람이 가난하다고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느냐?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여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참된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즉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문제와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표현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내 생각에 사람은 가난의 문제를 언급하고, 가난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물론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방식으로 신앙을 표현한다는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빈곤을 낳는 사회의 현실을 해결하고 정면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엔 제임스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회적 불의에 직면한 일종의 수동성에 대해 참을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실제로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에서도 나아가서 부자들을 권면합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겸손을 높이십시오.

이제 여기서 해석상의 문제는 여기의 부자도 형제, 그리스도인인지 여부입니다.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부자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반면에 대조는 우리가 형제를 공급해야 함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고, 그에 따라 부자 형제는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게 하십시오. 이제 이것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성경 학자들이 점점 더 어법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즉, 책 내에서 특정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명왕성(plutos)이라는 단어인 부자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결코 사용하지 않는 야고보서의 부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돈이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해 이야기할 때 명왕성이라는 단어를 피하는 방식으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에서 명왕성이 비기독교인 부자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6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를 압박하는 자는 부자가 아니냐?”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냐? 당신을 위하여 일컬어지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제임스 전체에서 명왕성 부자는 비기독교인 억압자, 부유한 억압자를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상대적 수단의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기를 원하면서 명왕성(plutos)의 사용을 피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여기서 비기독교인 부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적인 맥락에서 묘사되는 방식으로 암시되는 것 같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 꽃은 시들고 그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느니라. 그러므로 부자는 그가 추구하는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아이러니와 대조의 요소가 있습니다.

부자는 겸손을 자랑합니다. 즉,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자랑해야 함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굴욕을 자랑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돈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자로서 그들은 낮아지게 된다.

그들은 부가 자랑의 원천이 아니라 왕국의 가치 구조에서 교만의 원천이 아니라 오히려 굴욕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난한. 이것은 부자가 자신의 비천함이나 굴욕을 높이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일의 일부입니다. 더 넓은 책의 맥락에 따르면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5:1-6). 제임스는 이것을 전형적으로 부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추측을 그침, 4:13-17.

저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부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명왕성 이나 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를 추정한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부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 가서 장사하며 이익을 얻으리라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런데도 당신은 자신의 무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추측을 멈추고, 그들의 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면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나 재물에 대한 속임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그 점을 바로잡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관련된 것은, 더 구체적으로 부자와 부자의 사업, 고독이나 겸손을 높이는 일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인식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넷째,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과 나눔을 하게 됩니다(2:14-17). 단순히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주느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와 낮은 자에 대한 권고는 여기 10절과 11절, 10b절부터 11절에서 입증됩니다. 이 구절은 부의 무의미함을 말하고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임박하고 갑작스럽고 확실한 멸망과 대조합니다. 아름다운 꽃, 거의 확실하게 유프레페이아 (아마 우리가 A menemie 및 Kiklamen 으로 알고 있는 것)와의 비교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와 부의 삶, 부자의 삶의 매력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 부유한 삶,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 물질적으로 경험하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면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지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아름다움은 피상적입니다. 그것은 관통하는 태양 광선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죽음 앞에서 부의 무의미함을 지적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것을 합니다. 그는 4:14에 그것을 개발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는 4:14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는 정말로 죽음이 부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부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상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부의 무의미함을 태양이 말라가는 것에 비유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

태양의 흐름과 그 열은 확실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의 과정을 포함한 자연적인 과정에 반영됩니다. 다시, 4 :13-17. 죽음 자체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부자에게 내리실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킨다.

권위 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자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5:1-11). 그래서 여기 11절에서는 부자도 그 일을 하다가 쇠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죽음의 갑작스러움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는 제가 말했듯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를 다음 하위 단위로 안내합니다. 이는 시련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는 시련에 대한 반응과 기쁨으로 자신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되돌아갑니다. 이제 그는 12-15절에서 시련에 대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마카리오스(makarios)라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peirasmo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야고보서 1장의 이 부분에 나오는 두 핵심 단어인 후포메네오(hupomeneo) 와 페이라스몬(peirasmon)을 함께 가져옵니다. 인내하는 자, 휴포메네, 페이라스몬, 시련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심이라.

따라서 이 문단은 팔복으로 시작되는데, 아마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장의 팔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물론 복음전통, 특히 야고보서에 있는 마태복음이 상당 부분 반향되고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가 복음을 알았기보다는 이 책의 저자가 마태복음을 알았지만 아마도 마태복음에도 들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일종의 반향입니다. 여기에서 신약성서에서 일반적으로 미래 및 직접적인 문맥과 관련되는 마카리오스(makarios) 라는 단어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강조된 현재의 인내의 보상과 비교하여 여기에서 미래의 종말론적 보상이 강조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또한 이 구절이 5장 7절부터 11장까지, 특히 옴의 마지막 부분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시련의 끝에서 처음 보다 고난을 통해 확고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5장 11절에서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보라, 우리는 굳건한 자들을 복되다 일컫느니라, 팔로미노는 그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언어이다.

너희는 옴의 인내를 들었고 여호와와 뜻을 보았거니와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니라. 그래서 다시 이것은 옴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는 시련이 끝날

무렵에 처음 보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확고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처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자녀와 가축과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초월적인 보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설명된 미래의 종말론적 보상에 대한 보장은 물론 2절에서 제시된 현재의 기쁨에 대한 권고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가 시험을 견뎌냈을 때 도키모스(dokimos)라는 단어가 과정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키먼 으로 테스트 중입니다. 이 두 단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목하세요.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테스트라는 단어는 도키모스(dokimos) 입니다. 이는 3절의 도키먼 처럼 시험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종의 시험을 가리킨다. 그것은 2절과 3절의 시험 과정만큼 정확하지 않고, 평가만큼 시험 과정의 정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승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마지막 때의 보상이 강조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실제로는 그리스어로 동격의 속격입니다. 면류관은 생명, 면류관은 영생, 영생은 면류관으로 이해되고 아마도 승리자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경주를 마치면 뿌리가 있는 셸러리 등의 왕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내가 말했듯이 그런 종류의 일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아마 의도적으로 언어가 모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의 종말론의 일부는 의인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와의 공동 통치라는 측면에서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또한 정복에 대한 보상으로 정복하는 자들이 통치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사람들, 기독교인, 종종 경건한 기독교인은 종종 우리가 천국 등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경건한 추측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한 가지는 통치나 통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성서 전체에서 주요 강조점입니다. 이제, 시험 통과에 관한 이 사업, 즉 시험을 견디는 자는

시험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들이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기에 적합한지 알지 못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과 유혹에 대처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영원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만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저번에 사사기, 특히 사사기 2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모든 민족을 그들 앞에 내어 보내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여호와와 의 길을 삼가 행하는지 아니 함이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시험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무엇을 할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알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창세기 22장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을 시작한 후, 아브라함이 잘 행한 것을 두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천사가 한 말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관한 성경의 교리인 전체 교리와 어느 정도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거나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인류학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인격을 실제로 반영하는 인간 인격의 역동적인 복잡성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종의 우연, 일종의 신비, 심오한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즉 인간 존재의 인격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을 받게 되며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시험의 도가니 속에서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은 말하자면 정신적 지식을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할지 아시지만, 사람이 무엇을 할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결코 직면하지 않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비록 그분의 예지로 그분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십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어떤 축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즉 참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인간을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성격.

그리고 인격의 특징 중 하나, 측면 중 하나는 일종의 뿌리 깊은 복잡성으로 인해 사람의 깊은 성격은 하나님조차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도 이를 알 수 없느니라. 그래서 테스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보상을 받기에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적합하다는 것을 확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시험은 그분이 그 점에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시련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시련을 견디어 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첫 번째 부분 전체에 대한 중요한 해석 문제인 핵심 해석 이라고 부르는 것은 페리스무스의 모호성을 포함합니다. *apeiratos*, 한편으로는 시험, 시련 또는 시험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합니다.

이 말은 페리스무스 *apeiratos*는 시련이나 시험, 즉 외부적 고난이나 유혹, 죄를 향한 유혹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해석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지만,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작가가 단어 자체의 모호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임스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그는 이 단어를 시련과 유혹, 한편으로는 시련,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 즉 죄로 유혹하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그는 시련과 유혹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기 위해 단어 자체의 모호함을 사용합니다. 이제 제임스는 시련의 경험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며 도덕적으로 결정적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시련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시련을 참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시련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시련의 경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그 외에도 항상 시련 속에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련 속에는 언제나 유혹의 기회가 있습니다.

시련 속에는 유혹의 기회가 있습니다. 시련에는 항상 죄에 대한 유혹,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은 계속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누구든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지사항 재판, 페이라스무스. 이제 아무도 유혹을 받을 때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둘을 연결하는 apeiratos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못하게 하라.

물론 이것은 권고이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은 유혹이 오지 않는 곳이지만, 이어서 그는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즉,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고 시험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 창세기 22장 1절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페이라토스를 시험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지만, 죄로

이끌리는 유혹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련을 겪을 때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위협이 되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결코 유혹에 대해 비난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심지어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사람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이 유혹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입증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부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13b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유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문맥상 요점은 누군가를 죄로 유인하는 것, 즉 누군가를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악한 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을 저지르기는커녕,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려는 유혹조차 받으실 수 없다면, 논증은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진행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분은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유대 신학을 언급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유대인 신학, 특히 중간기 및 1세기 유대 신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 정말로 필수적인 곳입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유대교 기독교서적이다. 그는 신약성서에 반영되었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완전히 표현된 유대 신학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욕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 유혹은 우리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며, 욕망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 욕망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예제르(yetzer), 즉 예제하라(yetzer hara), 악한 욕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는 유대인 신학에서 두드러졌던 것처럼 그것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우리의 구절에서 욕망, 에피투미아(epithumia)가 욕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 예처, 이 욕망, 또는 예처하라, 이 사악한 욕망에 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처라는 개념은 미분화되고 중립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미분화되고 중립적인 욕망은 통제되지 않으면 한계를 벗어나 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구식 유대 신학입니다.

이 욕망 자체가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인간 삶에 고유하고 인간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삶에 추진력이나 자극을 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토라, 율법 또는 선한 충동과 같은 다른 힘에 의해 그것이 억제되지 않으면 노골적인 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죄가 그 사람 자신, 즉 억제되지 않은 욕망 안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유혹과 죄에 대한 책임이 개인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여기서 악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죄에 있어서 마귀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혀는 불의한 지체요 우리 지체 중에 있는 세상이라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순환을 불사르나니 지옥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히 환유어, 악마를 환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장 15절에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실 것입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리고 4장 7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야고보는 자신의 악 신학에 악마의 초월적인 힘을 포함시키지만 여기에 악마를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전적으로 그 사람의 어깨에 지우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그 근원을 사람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James가 체인에 참여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의 첫 번째 단원 끝에서 그가 어떻게 4절에서 설명한 사슬과 정반대의 사슬을 묘사하는지 주목하세요. 4절의 사슬은 다음과 같습니다. 3,4장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매우 다른 체인에 주목하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연쇄, 인과 연쇄가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연쇄가 있습니다. 4절에서 본 긍정적 연쇄의 대응입니다. 이제 이것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는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유혹이란 이 욕망에 이끌리는 것, 이 욕망에 이끌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엑소카미노스(exokaminos)입니다. 자, 이 단어를 번역하자면 '유인'은 실제로 낚시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줄에 의해 물 밖으로 끌어내어 낚아채고 끌어당기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람은 이러한 욕구를 포기하거나 복종합니다.

사람은 이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신이 이 욕망에 끌려다니도록 허용합니다. 이제 유혹에는 유혹당함, 유혹당함, 미혹됨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deliazo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냥의 영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끼로 덫에 걸린 동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즉각적인 즐거움, 즉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없이 이 욕망에 매료된다는 개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의 매력에 현혹되는 모습이다. 이는 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유혹의 큰 매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은 실제로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연결고리로 이어집니다. 그 너머에는 각 사람이 유혹에 빠질 때, 자기 자신의 욕망에 미혹되고, 욕망이 잉태하면 유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고기잡이와 사냥을 유혹하는 여자, 매춘부로 이미지를 바꾸는데, 아마도 잠언 1장부터 9장, 특히 5장과 8장, 9장에서 지혜는 고귀한 여자로 제시되고 어리석은 여자는 창녀로 제시됩니다. 순진한 젊은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창녀. 그 이미지는 실제로 이러한 욕망 때문에 실제로 아이를 낳은 매춘부와 성관계를 갖는 이미지입니다.

야고보는 매춘부로서, 혹은 적어도 사생아, 곧 죄의 자녀를 낳은 방탕하고 방탕한 여자로서 견잡을 수 없는 욕망을 제시합니다. 이는 세 번째 링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여기 세 번째 링크에서 야고보는 죄가 끝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여기서 어린아이로 묘사되는 죄가 자랍니다. 당신은 죄가 완전히 또는 완전히 발전했습니다. 아포탈레오.

태어날 때 그 안에 내재된 모든 추함과 파괴는 완전한 발전과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것은 자신의 아이, 죽음, 아포코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Apokoel은 종종 사회적으로, 즉 사생아이거나 자연적으로, 즉 괴물이나 괴물의 탄생이라는 끔찍한 탄생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서 1장에서 이 주요 단위를 사슬, 긍정적인 사슬로 시작하고, 4절, 시련, 인내, 생명으로 끝맺지만 꽤 대조되는 사슬, 욕망, 죄, 죽음으로 끝냅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프로세스에 참여합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프로세스, 어떤 종류의 체인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3절과 4절의 사슬이니까, 아니면 15절의

사슬입니까? 좋아요,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음 부분에서 James 1의 나머지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17회차 야고보서 1:5-15입니다.